

금호석화, R&D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매출 12조 목표”

올해 ‘지속성장 기업 전환’ 선포
바이오실리카 적용 친환경 고무
재활용 스타이렌 적용 SBR 등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제품 발굴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연구원들이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 비즈니스 선점 준비에 나선다.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지속성장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2026년까지 친환경사업 매출 2조, 신사업 매출 2조를 포함한 총 매출 12조 달성을 목표로 수립하며 그룹의 청사진을 그렸다. 이를 위해 각 계열사는 R&D를 기반으로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 제품을 발굴하고 관련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내연기관 축소 등 메가트렌드에 적극 발맞춰 나갈 방침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R&D를 바탕으로 미래 변화에 빠르게 대

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키우고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연기관은 축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는 적극 대응

금호석유화학은 내연기관 축소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된 사업 포트폴리오에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 리

튬이온배터리(LIB)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CNT(탄소나노튜브)가 대표적이다. 주로 리튬이온배터리의 양극 도전재로 사용되는 CNT는 기존의 카본 블랙 소재보다 전도도가 높아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역시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P는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가볍

고 내충격성, 내열성 등이 우수한 고기능성 플라스틱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전기차 부품용 EP 제품을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활동에 집중한다.

금호플리켄 역시 고기능성합성고무 EPDM과 열가소성 수지(TPE)의 일종인 TPV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친환경 경차 소재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선다. 금호플리켄은 친환경차 시장에서 차량 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고성능 EPDM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고부가가치 EPDM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어 자동차 호스 등에 사용되는 TPV 제품군도 물성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켜 향후 친환경 소재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에 친환경 더한다”...친환경 고무 사업 확대

금호석유화학은 친환경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이오실리카’를 적용한 친환경 고무 복합체 제조 사업이다. 기존의 규사(珪砂) 기반의 실리카 대비 쌀

겨에서 추출한 실리카, 즉 바이오실리카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어 친환경 공법으로 분류된다. 금호석유화학은 고기능성 타이어용 합성고무인 SBR에 ‘바이오실리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품질 안정화를 진행 중이다. 금호석유화학은 향후 바이오 실리카 SBR을 국내외 주요 타이어, 신발 제조회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재활용 스타이렌(RSM)을 SBR에 적용한 Eco-SBR도 친환경 사업의 일환이다. RSM은 폐플라스틱(폐PS)을 열분해 처리하여 추출한 친환경 원료로, 이를 타이어의 내마모성과 연비 성능을 향상시킨 합성고무 SBR에 적용하면 성능뿐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바이오 실리카 적용 SBR과 Eco-SBR를 통해 타이어 시장에서 친환경 원료에 대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에 친환경 제품과 관련된 기회 요인을 모색하며 사업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K온·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 사업 맞손

소재부터 재활용까지 전방위 협력 나선다

전체 밸류체인 공동프로젝트 발굴
원소재 투자, 양극재 개발 등 추진



(왼쪽부터)지동섭 SK온 대표와 유병욱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팀장(부사장)이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SK온과 포스코홀딩스가 이차전지 사업 관련 전방위적 협력에 나선다.

SK온은 15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홀딩스와 ‘이차전지사업의 포괄적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동섭 SK온 대표이사, 유병욱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팀장(부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이차전지 원소재부터 양·음극재, 리사이클링에 이르기까지 전체 밸류체인에 걸쳐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또 SK온의 이차전지 생산에 대한 중장기 확장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포스코그룹의 소재 확대공급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들은 향후 실무그룹을 결성해 ▲해의 사업 확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 ▲리튬·니켈 등 원소재 부문 투자 ▲양극재 개발 로드맵 ▲음극재 공급량 확대 ▲폐전지 수거 네트워크

크 공동 구축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동섭 SK온 대표는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높은 역량 및 인프라와 SK온의 기술력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면 한국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욱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

재 팀장도 “리튬, 니켈, 양·음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포스코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SK온의 사업 협력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K온은 세계 최초로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를 연속해서 개발 및 양산하는데 성공하는 등 기술력과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2019년 10위권이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현재 5위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에는 전고체 배터리 선두기업인 미국 솔리드 파워 지분을 확보하기도 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3월 아르헨티나에 이차전지 원소재인 리튬 생산 공장을 착공하고, 지난달에는 전고체 배터리 전문기업인 대만 프롤로지움社에 지분 투자, 올해 초에는 고체전해질 생산 법인 포스코JK솔리드솔루션을 설립하는 등 이차전지소재 사업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렉서스 신형 NX서 ‘U+모바일tv’ 본다

LG유플러스 ‘U+Drive’ 탑재
차 안에서 집안 가전기기도 제어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NX에 탑재된 U+Drive.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15일 한국 시장에 출시되는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NX 450h+·NX 350h에 U+Drive 기반의 렉서스 커넥트를 탑재한다고 밝혔다.

U+Drive는 차안에서 실시간내비게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차량관리, 인포메이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LG유플러스의 통합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플랫폼이다. 자연스러운 대화가능한 네이비 클로바 인공지능(AI) 음성인식이 탑재돼 목소리로 차량 공기 등을 제어하고 목적지를 설정하는 등 안전운행을 할 수 있다.

U+Drive가 탑재된 뉴 제너레이션 N

X에서는 U+모바일tv, 지니뮤직, 팟빵 등 미디어 서비스를 차 안에서 마음껏 시청할 수 있다. 차 안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LG유플러스의 스마트홈 플랫폼과도 연결돼 차안에서 집안의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LGD, 국내외 금융권서 10억 달러 조달

베트남 OLED 기반시설 등에 투입

LG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금융권에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LG디스플레이는 한국 공적 수출 신용기관과 글로벌 은행들과 협약을 맺고 10억달러 규모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고 15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의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급 보증을 토대로 호주뉴질랜드은행(ANZ Bank), 홍콩상하이은행(HSBC), 씨티은행(Citi Bank), 스페인 카이사은행(Caixa Bank) 등 글로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경쟁력 있는 금리로 장기 조달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수출입은행은 보증뿐 아니라 직접 대출에도 참여한다.

LG디스플레이는 금융시장의 금리인상 기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이번 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참여 했다는 데에 기술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중소형 OLED 경쟁력을 높여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경기도 파주 사업장(패널) 및 베트남 사업장(모듈) 생산시설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조달되는 자금은 당시 결정되었던 투자 가운데 베트남 사업장의 OLED 모듈 라인 증설과 기반 시설 구축 등에 투입 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아시아나, 방콕·LA 노선에 ‘A380’ 투입

기존 A330 대비 184석 늘어
해외여행 좌석난 해소 기대

아시아나항공이 본격적 해외여행 재개로 늘어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 여객기인 A380을 투입한다.

미주 노선 중 가장 관광 및 교민·유학생 수요가 많은 도시 LA와 동남아 관광 도시 중 인기가 높은 방콕에 A380 2

대를 우선 투입한다. ▲인천~방콕 노선은 6월25일~10월 29일 기간에 주 7회를, ▲인천~LA 노선은 7월 23일~10월 29일 기간에 주 3회(월,수,토) A380을 운용할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코로나19 입국 규제 해제 이후 급격히 이용객이 늘어나 공급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던 곳이다. 양 노선은 5월 탑승율이 약 90%에 달했

고, LA 노선은 하루 2회를 운항할 정도로 수요가 많이 몰렸다.

수요가 많던 두 노선에 A380을 투입함에 따라, 해당 노선 좌석난도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방콕 노선은 기존 운용하던 A330(298석) 대비 197석이, LA 노선은 기존 A350(311석) 대비 184석이 늘어나 주간 기준으론 방콕에 1379석, LA에는 552석이 더 공급된다.

A380은 ‘하늘위 호텔’로 불리는 최고급 기제로 현존하는 항공기 중 최대 인원을 수송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